

서효인의 '좌측담장'



총재님은 무얼 하시기에

비시즌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야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점점 더 없어져 간다. 현재 KBO를 이끌고 있는 수장은 한때 야구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로 오르내리던 인사인데, 만약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하면 심히 아찔해진다.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KBO 총재로서의 그의 활동은 특히 취임 전 야구광으로 유명했던 그의 명성에 비하면 초라하고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취임 일성으로 그는 총재보다는 '커미셔너'라 불리길 원한다 말했다. 어딘지 메이저 리그 냄새가 나는 단어 커미셔너는 프로 스포츠의 품위와 실사를 유지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뜻한다. 각종 룰을 조정하고 구단 간의 이해득실, 구단과 선수와의 갈등, 지자체와 야구단과의 관계, 팬과 리그의 밀착도 등등, 커미셔너라는 사람에게 이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특정 기업 출신이거나 현직 정치인인 아닌 그에게 현명한 조율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사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 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무언가 기대를

거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배운 사람 중에 최고의 '야알알'이라던 그는 야시안게임 병역 특례 논란 때문에 국회에 불러 나가서는 야구계의 현실과 대책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야알알' 국회의원의 공세에 밀려 점입 감투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을 한다. 그의 말은 '사퇴 중용이 아닌 중용'이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가 대표 감독직은 공석이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앞서 줄줄이 이어질 국제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야구 인기의 상당 부분이 2006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내년에 있을 올림픽에서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를 부진은 인기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사실 국가 대항전 준비는 그에게는 옵션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리그 활성화가 KBO 총재의 본업이자 존재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리그 활성화를 위한 커미셔너의 역할은 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드러져야 한다. 경기장 내 외에서의 룰을 수정하고, 비합리적인 제

도를 지금의 실정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FA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90년대 후반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가까스로 탄생한 이 제도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동안 땀질식 처방만 있어 왔을 뿐, 리그 규모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은 거의 없었다.

특급 선수자 제도의 디테일에 상관없이 원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었지만 그런 선수는 그야말로 소수에 불과하다. 계약 종류에 따라 직장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에 따라 선수 이동이 활발해져 리그를 풍성하게 해야 할 제도의 목적이 이제는 특정 선수가 한몫 잡는 용도로 변질되었다. 등급제, 쉐어링 오퍼, 셀러리캡, 신인 지명권 보상제, 외국인 선수 쿼터제 등 다른 리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완책도 검토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상상력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 것이다. 냉랭한 FA 시장은 현실 파악을 못한 선수와 에이전트의 탓도 있지만, 낙후된 제도를 오래 방치한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작년 구단이 내놓은 80억 원 상한제는 사실상 선수협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

안이었다. 그러나 협상을 위한 선제 조치로 불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협은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과 같다. 10년 가까운 시간을 성실히 뛰어난 선수는 하염없이 늙어지는 계약에 일부 팬들의 비아냥거림을 감내하고 있다. 구단은 구단대로 경직된 수단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구단도 선수도 이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 상충되는 이익을 누구 하나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조정자가 필요하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커미셔너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KBO 총재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 상충된 이익을 조절하고 갈등과 반목을 봉합해 리그의 구성원을 이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중요한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고 VIP석에 앉아 좋아하는 야구를 편안히 즐기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정운찬 총재는 아무래도 후자로 보이는데, 그 또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진짜로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왔다.

<시인>

의료칼럼

담낭 담석증과 식습관



임민호 광주비로병원 외과원장

불량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 이 외에 복부 위쪽을 만졌을 때 호흡 곤란과 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오심이나 구토, 황달, 발열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담낭 담석증의 발생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습관과의 연관성이 높다.

육류나 튀김 등 기름진 음식의 섭취 빈도가 높아지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담즙 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면서 담즙이 걸쭉해지며 정체가 유발돼 담석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담즙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임신중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다출산 여성의 경우 담석증의 발생률이 올라가게 된다.

기름진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면서 지방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담즙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담낭에 농축되면서 담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영양 및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도 세균 감염에 의해 담석이 생기기도 한다.

담석증의 증상으로는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 오른쪽 갈비뼈 아랫부분

이나 상복부의 통증, 황달이나 회색 변이 나오는 등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담석증의 치료는 증상에 따라 수술적 요법과 비수술적 요법으로 나뉘어지며, 증상이 없거나 심하지 않을 경우 비수술적 요법으로 경구 약물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증이 있거나 반복되는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간혹 담석과 담낭 내 용종이 같이 동반돼 경우는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직 검사 겸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 때는 담석만을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으며 담낭을 통째로 제거하는 담낭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우측 갈비뼈 밑으로 20cm 이상 큰 절개를 하고 개복 수술로써 담낭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이나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1-2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할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은 1cm 가량의 포트를 복부 서너 부위에 삽

입해 시행하거나 흉터 최소화를 위해 배꼽에 한 개의 절개창만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술도 시행하고 있다.

배짊은 복벽 중에서도 수술 후 치유가 잘 되고, 배짊 자체의 봉인 효과가 우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작아지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술의 경우 한 개의 절개창에 카메라와 2-3개의 수술기구가 들어가서 시행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신체에 가지고 있던 장기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경우도 많지만, 담낭의 역할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농축시켜 십이지장으로 배출하는 것이므로 담낭을 제거하더라도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그대로 십이지장으로 배출돼 일상 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갑게 진단 가능하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짧지만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병이 악화되고, 기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소화 불량이 잦거나 상복부 통증이 자주 반복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고

전남 '교실 바꾸기'는 개혁 인사로부터



안창순 곡성민주사회단체협의회대표

디로 요약하면 '교실 바꾸기'였다. 나는 그 말에 공감이었다.

교실 바꾸기에는 전제가 뒤 따른다. 권위주의, 전시 행정, 성과주의 등의 구시대적 잔재 정진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보수적 집단이라는 오명답게 그것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 현장이다. 이것은 그동안의 전남 교육의 수뇌부가 권위주의, 전시 행정, 성과주의에 몰든 조직을 바꾸려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그 일에 소홀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데 결국은 사람을 잘못 썼다는 얘기다. 따라서 장석웅 교육감의 교실 바꾸기는 사람을 잘 쓰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며 인사가 만사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처럼 교육계에 대대적인 정기 인사가 단행된다. 작년 여름 인사가 새 참모진을 짜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면 새봄에 단행될 정기 인

사는 전남도 각 시군의 일선 장병(?)들까지 총망라하는 그야말로 장석웅 새 교육감의 개혁 의지를 확실하게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이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다. 그리고 핵심 개혁 과제는 집권 초기에 성사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실 바꾸기'를 위한 첫 번째 개혁 인사가 그 어떤 이유로도 머뭇거리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도농 각지에서 교실이 바뀌기를 바라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민, 그리고 지지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개혁에는 아픔이 따른다. 개혁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언제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달같은 깨야 음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갈량이 법을 엄정히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야기는 장수를 울면서 벤(엄참마속) 것처럼 개혁은 단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여 허름한 초옥을 세 번씩이나 찾은(삼고초려) 정도로 훌륭한 인재를 얻기 위한 간절함도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장석웅 교육감의 교실 바꾸기도 일선 학교 교실에는 얼씬도 못한 채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춰버릴 정도로 어정쩡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개혁은 아무리 잘 해도 전부가 박수치는 일은 없다. 선거 때 받은 지지율만 유지해도 성공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오직 학생만 바라보고 교실 바꾸기에 전념해야 한다.

다가오는 새봄, 장석웅 교육감의 개혁 인사가 일선 학교 교실까지 파스한 봄바람을 몰고와 각급 학교 교실마다 학생과 선생님들의 희망에 찬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민간공원 주변 학교 콩나물 교실 만들 썸인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사업 대상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초등학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미룬 채 사업자 선정에만 치중해 온 탓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는 1단계 4곳, 2단계 6곳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중 1단계에는 5300여 가구, 2단계에는 98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생수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초등학교 확보와 학생 배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통학 거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 1.5km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가운데 1단계 송암, 2단계 운암산-중의 등 3개 공원 주변 학교들은 이미 과밀 학급

으로 시달리고 있어 학생을 추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는 최근 예야 뒤늦게 광주시교육청에 학생 배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양측은 아직 미묘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 시설의 경우 부지를 확보하려면 공원 개발 면적 조정과 추가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데다 교육부의 허가나 예산 지원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광주시가 아파트 건립에 따라 예상되는 교육 수요에 대한 분석도 없이 개발에만 몰두해 온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들도록 명시하고 있는 데도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다.

학교 확보와 학생 배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칫 사업 차질은 물론 학생들의 피해까지 우려된다. 늦었지만 광주시는 교육 당국 및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계엄군 국가 유공자'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는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5·18당시 광주에 진압 병력으로 투입됐던 계엄군 중 부당하게 지정된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국포지 안장 여부 등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국가유공자 지정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가 요건이지만 계엄군의 광주 진압은 전투로 볼 수 없고, 공무(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또한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노 전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정권 말기에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장법"을 개정해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5·18 계엄군·경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이는 모두 73

명. 이 가운데 56명은 적절함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공자로 지정돼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까지 영관급 4명과 위관급 1명 등 30명이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6명에 대해 즉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5·18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못지않게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는 이 같은 여론에 귀를 기울여 부당한 유공자 지정 취소를 서둘러야 한다. 수개월째 5·18 진상위원회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지금, 광주 시민들은 5·18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히 진압한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

無等鼓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놀라는 것 중의 하나가 60~70대 여성들의 친화력이다. 그들은 전철과 버스 옆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랜 시간 만나온 이들과 친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짧은 시간에 손자 이야기부터 건강 정보까지 온갖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웃음이 나오곤 한다.

비슷한 시간에 같은 버스를 계속 이용하다 보면 운전기사와 승객 역시 '알고 지내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녀들의 친화력은 여기서도 발휘된다. 출퇴근 버스

에 사는 버스기사 패터슨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도시락을 챙겨 들고 출근하는 그의 일상은 똑같아 보인다. 일주일의 삶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간다. 여는 버스 기사와 다른 게 있다면 그가 '시를 쓴다'는 점이다. 차고지에서 출발하기 전, 점심 시간 짬을 내 그는 연필로 '시'를 쓴다. 두 사례는 잠시지만 버스기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였다.

1000번 버스의 추억

옛날 1000번 공항버스에서는 특히 그런 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조대병원으로

다. 17년간 운행해온 회사는 적자가 쌓여 휴업을 신청했다. 일단 폐업 대신 6개월 휴

가는 할머니는 꼭 아들에게 말하듯 이야기를 건네고, 제주도에서 살다 온 기사와 제주도에서 시집 온 여성의 반가운 해후를 접하기도 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사랑하는 맛'이 느껴졌다.

지난해 출간된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는 전주에서 '386번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의 에세이집이다. 격일제로 18시간 운전하는 그가 펴낸 책 속에는 팍팍한 노동의 일상과 함께, 버스 속에서 만난 다양한 인생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영화 '패터슨'의 주인공은 미국 패터슨

업을 택하고 시와 방안을 찾는 모양이다. 가까이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인 듯하다. 없었어 보니 알겠다. 무뎠던 기사들도 있지만, 생각해보니 최근 길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오를 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는 한 마디에 위로를 받았던 것도 같다. 반대로 고단한 운전기사들에게 우리가 먼저 건네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마디도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

/김미은 편집부국장·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특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체육부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